

Moon Shin was born at Masan  
 창원시립 문신원형전시관

Project Team | Jang, Hyeon-woo/ Gwon, Hyeong-jun

Gwak, Seon-mi/ Ryu, Gyeong-jin

Client | Masan City

Location | Changwon-si Masanhappo-gu Chusan-dong

Site Area | 1,048.10m<sup>2</sup> Building Area | 565.35m<sup>2</sup>

Gross Floor Area | 858.79m<sup>2</sup> Building to Land Ratio | 54.31%

Floor Area Ratio | 82.50% Structure | 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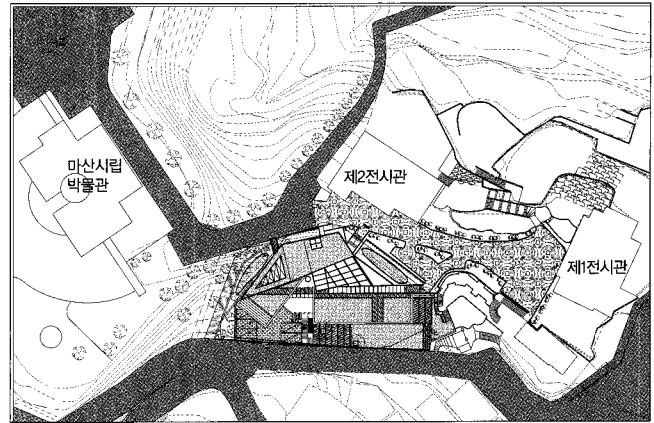
Structural Engineer | SNS Structural Engineer

HVAC Engineer | Shin Young Building Scope | 3F

Electrical Engineer | HITECEPC

Finishing Materials | THK16 pair glass, U-glass, Sand stone, Granite

Photographer | not disclosed Cost | not disclosed



배치도



김정환 | 정회원 건축사사무소 예원  
 Architects | Kim, Jeong-han, KIRA



원형전시실\_석고원형 및 스케치 전시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 선생은 1923년 마산에서 출생했다. 힘든 유년시절을 거쳐 16세 동경의 미술학교에 입학 후 고학으로 학업을 마쳤다. 1945년 귀국하여 1968년 도봉하기까지 국내에서 회화 위주의 맹렬한 작품 활동을 했으며 프랑스로 건너간 후 본격적인 추상 작업을 시작한다. 이 시기 문신 예술의 생명을 갈구하는 '시메트리 양식'을 구축하게 된다. 시련을 극복하면서 세계적 작가로 성장한 후 1980년 귀국 시까지 2백여 회에 걸쳐 각종 국제전시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귀국 후 합포만이 보이는 마산의 무학산 동쪽 환주산자락 생가 터전에 자리를 잡았다.

"나는 노예처럼 작업하고, 서민과 같이 생활하고, 신처럼 창조 한다"며 치열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생전 꿈이었던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직접 공사에 참여하여 1994년 미술관을 개관했다. 그 후 석고 조각원형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다 1995년 타계했다. 꿈에도 그리던 고향마산 합포만을 바라보는 미술관 언덕에 안치 된지 15년 만에 꿈을 이룰 수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원형 미술관과 10미터 위에 있는 기존의 문신 미술관은 마산 팔경에 포함되는 추산공원 언덕에 있다. 남쪽으로 마산 박물관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화원현 토성이 무학산으로 연결되고, 동쪽으로 시가지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 창원시는 기존 문신 미술관 건립 당시부터 선생이 소망한 석고 조각 원형 전시관 건립을 계획했다.

미망성으로 머물렀던 미술관의 완성과 마산 팔경의 문화네트워크 구현, 지역민을 위한 문화 예술의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곳은 지역민을 위한 문화 시설이자 열린 공간이다. '시티 스테이지'라는 기본 방향을 친환경 건축으로 풀어갔다. 기존의 주변 녹지와 연결하며 도시의 무대가 되고 만남의 장소, 휴게 및 퍼포먼스가 함께하는 예코 힐의 산책길로 전망과 풍경이 함께한다. 독립된 아트리움이 아닌 전체 프로그램과 공간, 동선 사이를 관통하는 입체적인 아트리움과 복도, 전망 데크는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대지 레벨을 해석한 결과다. 기존 미술관 마당에서의 조망성과 확장성을 전제로 한 지붕의 녹색, 시립 박물관과 문신미술관이 연계된 문화 예술의 거리 조성 등 매스의 분리 및 결합을 통한 도시의 산책로로서의 미술관을 계획했다.

무학산에서 발견되어 합포만으로 이어지는 아트리움과 수공간은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규모가 축소되어 여러 아쉬움도 있지만 작품과 만나고 사람과 만나는 이곳이 "조국에는 영광을 고향에는 사랑을" 남긴 문신 선생의 순수한 예술정신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World-famous sculptor Moon Shin was born at Masan in 1923. Though he passed hard childhood, he could enter an art school in Tokyo when he was 16 years old, and studied under adversity. After returned to Korea in 1945, until 1958 when he went to France, he had done a lot of painting-centered works in Korea and he started earnest abstract works in France. In those days, he constructed "Symmetry mode" which is the main stream of Moon Shin's art life. He could grow up as world-famous sculptor during he overcame many trials, and then he participated all kinds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about two hundred times until he returned to Korea in 1980. After returned to Korea, he settled down at the foot of Whanju mountain at the east of Muhak mountain in Masan where he was born.

He worked severely as he said "I work like a slave, I live like common people and I create like God". And he directly participated during construction to make art museum which was his dream in spite of difficult situation and he finally opened in 1994. After that, he passed away in 1995 when he propelled to construct gallery of gypsography. It has special meaning that he can come true his dream in 15 years after he was enshrined at a hill of art museum overlooking the happo bay in Masan, his hometown he missed.

This circle gallery and existing Moon Shin art museum upside 10 meters from gallery are located at Choo San park which is one of the eight sights of Masan. There is Masan museum at the south of this gallery and Hoewonhyun mud rampart constructed at Korye dynasty is connected with Mu Hak mountain to the west, and city and sea can be seen at the east. Changwon city planned this gypsography circle gallery from when existing Moon Shin art museum was built. This is the culture facilities and opened place for citizen with aim to complete museum uncompleted, realize the culture network of eight sights in Masan and provide place of culture and art for citizen. We solved the basic direction what is called "City Stage" by eco-friendly architecture. It is connected with surrounding green land, it can be stage of city, meeting and resting place, and a walk of eco-hill with performance, and view and scene will be together. It is not a independent atrium, it is the result of ground level's analysis based on basic idea for whole programs, three-dimensional atrium and passage passed through space and line, and view deck.

It was planned to build museum as a walk of city through separation and combination of mass such as green color of roof on condition of view and extension at the yard of existing museum, creation of culture and art street related with City museum and Moon Shin museum. Atrium and water space revealed from Muhak mountain connected to Hapcho bay pay a roll as agent. Although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as scale is reduced by problem of budget, I hope that this place to meet with work and with people would be the space that Moon Shin's pure art spirit is alive who left the phrase "Glory for the country, Love for the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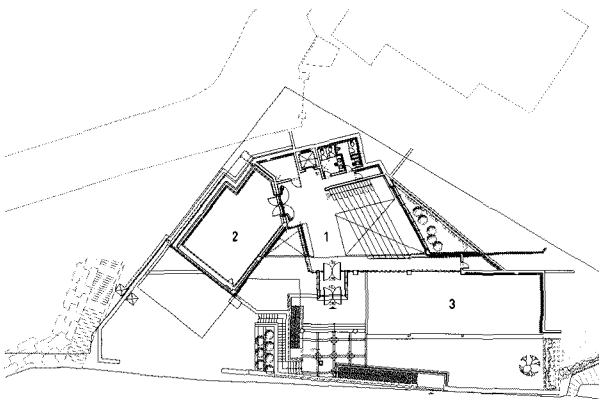
제진시관에서 바라본 기존 문신미술관 마당과 원형전시관 전망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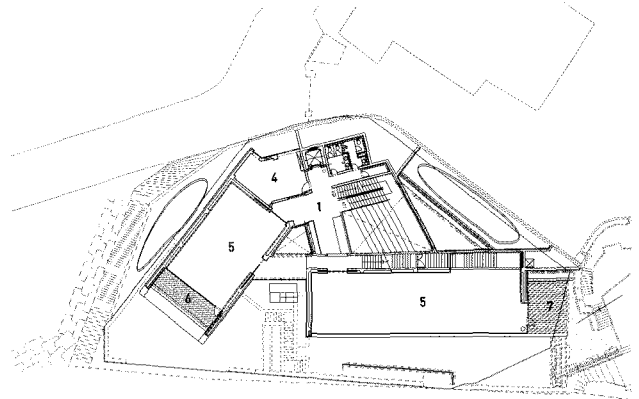


전면 도로에서 바라본 문신원형 전시관

- 01\_ 홀/복도      03\_ 필로티      05\_ 원형전시실      07\_ 휴게 공간
- 02\_ 수장고      04\_ 공조실      06\_ 전망테라스      08\_ 연결복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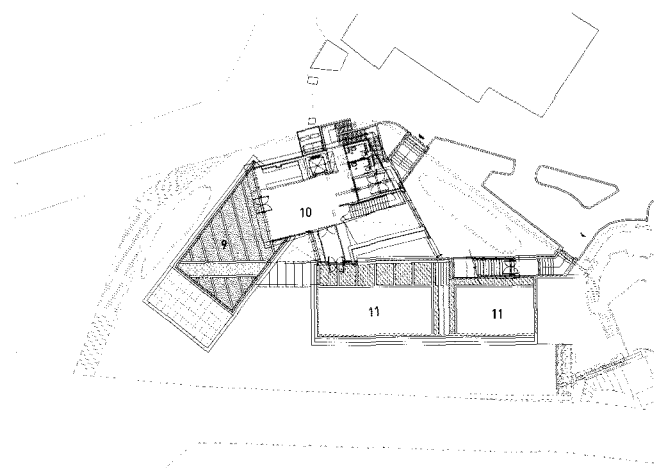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원형전시실 외부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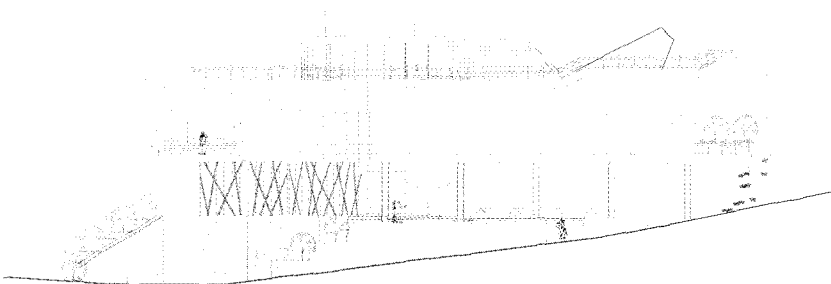
09\_ 전망테크 10\_ 홀/유지업소 11\_ 친디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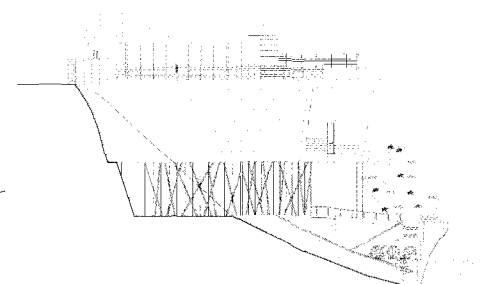
3층 평면도



제2전시관, 제1전시관, 제3전시관, 제4전시관, 제5전시관, 제6전시관, 제7전시관, 제8전시관, 제9전시관, 제10전시관, 제11전시관, 제12전시관, 제13전시관, 제14전시관, 제15전시관, 제16전시관, 제17전시관, 제18전시관, 제19전시관, 제20전시관, 제21전시관, 제22전시관, 제23전시관, 제24전시관, 제25전시관, 제26전시관, 제27전시관, 제28전시관, 제29전시관, 제30전시관, 제31전시관, 제32전시관, 제33전시관, 제34전시관, 제35전시관, 제36전시관, 제37전시관, 제38전시관, 제39전시관, 제40전시관, 제41전시관, 제42전시관, 제43전시관, 제44전시관, 제45전시관, 제46전시관, 제47전시관, 제48전시관, 제49전시관, 제50전시관, 제51전시관, 제52전시관, 제53전시관, 제54전시관, 제55전시관, 제56전시관, 제57전시관, 제58전시관, 제59전시관, 제60전시관, 제61전시관, 제62전시관, 제63전시관, 제64전시관, 제65전시관, 제66전시관, 제67전시관, 제68전시관, 제69전시관, 제70전시관, 제71전시관, 제72전시관, 제73전시관, 제74전시관, 제75전시관, 제76전시관, 제77전시관, 제78전시관, 제79전시관, 제80전시관, 제81전시관, 제82전시관, 제83전시관, 제84전시관, 제85전시관, 제86전시관, 제87전시관, 제88전시관, 제89전시관, 제90전시관, 제91전시관, 제92전시관, 제93전시관, 제94전시관, 제95전시관, 제96전시관, 제97전시관, 제98전시관, 제99전시관, 제100전시관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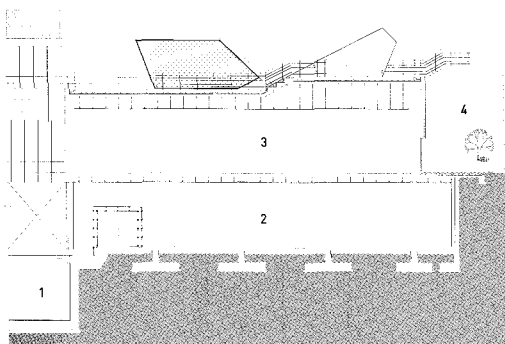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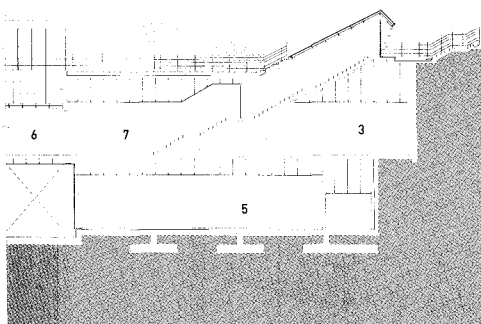


기존 미술관 야외 전시장과 연결되는 원형전시관 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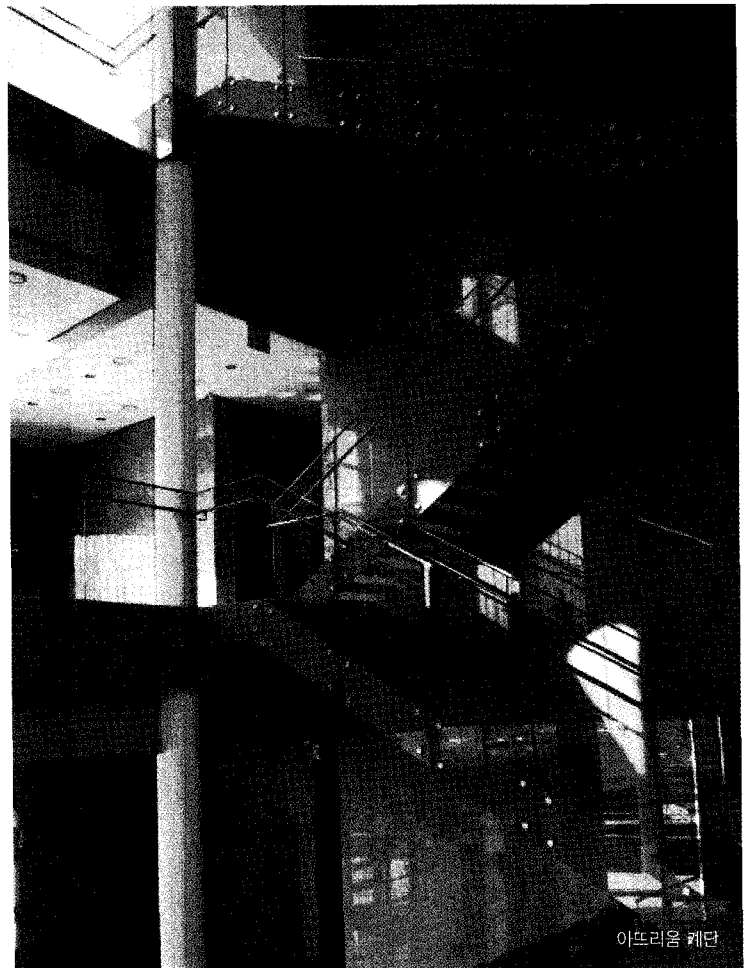
- 01\_지하저수조    03\_원형전시실    05\_복도    07\_홀/복도
- 02\_필로티    04\_휴게공간    06\_연결복도



단면도 1



단면도 2



아프리오울 계단